



# 뜻밖의 상징조형물... 공간 알리는 역할 톡톡

제주현대미술관 '여보세요' 2009년 평화미술제로 설치 방문객 인기 절거않고 단장 산지천갤러리는 기획전 연계 외벽 두른 '황금남' 주목 끌어

손으로 철거해야 하지만 미술관 측은 최근에 이 작품을 새롭게 단장했다. 방문객들이 남긴 SNS 등으로 유명세를 타며 미술관 상징물처럼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여보세요'를 다시 제작, 설치한 시기에 맞춰 별도 홍보물도 만들었다. 끝없는 욕망과 경쟁의 시대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보라는 작업 의도를 설명한 리플릿이다. 불거리를 위해 이 작품을 비추는 야간 조명 시설도 더했다. 미술관 측은 "관람객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알리는 메신저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현대미술관 조형물이 뜻밖에 공간을 알리는 작품이 되고 있다면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갤러리에선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기획전과 연계해

계획적으로 건물 외벽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다. '낮을 잊는 달'을 통해 제작된 최성임 작가의 '황금남'이다. 산지천갤러리 건물 앞면과 오른쪽 옆면에 가변 설치된 '황금남'은 폴리 에틸렌망, 철망, 플라스틱 공을 이용했다. 바람을 따라 초록색 사이로 노란빛 감금이 흔들리는 듯한 형상이다. 산지천갤러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취지로 유휴 시설을 활용해 생겨난 신생 전시장인 만큼 해당 설치물은 공간의 존재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갤러리 측은 "건물 바깥에 '황금남'을 설치한 이후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한 문의를 해올 정도로 관심이 높고 주목을 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획전이 마무리되는 3월 15일까지만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10년 넘게 미술관 입구를 지키며 제주현대미술관의 상징조형물로 자리잡은 최성임의 '여보세요'.

# "영주십경 제1경 성산일출 아닌 성산출일"

오문복 편역 '영주십경' 발간 매계 이한우 문집 등 바탕 "명칭·차례 바뀌 쓰면 안돼"



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산포조어(山浦釣魚), 고수목마(古藪牧馬)를 일컫는다. 비슷한 시기인 1841년

(헌종 7)에 목사로 왔던 응와 이원조 역시 이 열곳에 차례와 명칭이 일부 다른 시를 지었다. 이어진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 매계가 응와의 품제를 바꾸었는지, 응와가 매계의 품제

를 바꾸었는지에 대해선 뚜렷이 알 길이 없다.

영주십경이 명명 당시처럼 지금도 절경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인들이 주목받은 시로 일찍이 제주의 남다른 풍경을 입증한 공은 크다. 서귀포문화원(원장 강병인)이 그같은 영주십경의 의미를 다시 살핀 책을 묶었다. 한학자인 소능 오문복 선생이 편역한 '영주십경'이다.

이 책은 '매계선생문집'과 '제가음영집(諸家吟詠集)' 등을 대조하며 영주십경시를 대본으로 오사(誤寫)를 바로 잡고 속자를 정자로 고쳐 썼다. 영주십경시는 아니지만 제주의

풍광을 품제한 오태자의 시도 말미에 덧붙었다. 이중 '제가음영집'은 표지에 제목도 없고 등서한 이의 이름도 없는 필사본이다. 매계는 물론 그와 증명한 여러 사람의 시 등이 필사되어 있다.

소능 선생은 특히 오늘날 영주십경을 인용하면서 명칭이나 차례를 잘못 알고 사사로이 바꿔쓴 안된다고 강조했다. '출일'을 '일출'로 쓸 경우 뒤이는 '낙조'와 대구(對句)가 맞지 않아 시적인 흥취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제주도 실기'에 '일출'로 오식된 것을 '증보 탐라지'에 그대로 답습하면서 성산 일출로 받아 쓴 것이 본래의 이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비매품. 문의 064)733-3789.

진선희기자

이번주(2월 17~23일) 무대 & 미술

## 제주 골목 그리워지는 양림동 풍경

연갤러리 이민 초대전 열려 판타블로 기법 정겨운 화면



연갤러리 초대전 이민의 '풍경Y'.

광주의 오래된 골목 풍경이 제주 전시장에 내려 앉았다. 제주시 연북로 연갤러리 초대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민 작가의 작품전이다.

이민 작가는 광주 양림동을 즐겨 그려왔다. 'Y 스토리 고향연가'란 이름이 달린 제주 초대전에도 양림동의 아련한 모습과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들 작품은 판화와 서양화를 접목해 작가 스스로 명명한 판타블로 기법으로 완성됐다.

<공연>

▶2020 제주국제합창축제 앤 심포지엄=국내외 6개국에 참여하는 합창축제 2월 17~20일 문예회관, 탐동 오리엔탈호텔, 724-0474.

▶밴드쇼 제주도 음악여행=2월 20일 오후 9시30분 서귀포시 이충서곡 우드스타, 2월 21일 오후 7시 서귀포시 막동산로 시냇서점, 2월 22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동문로 버드랜드, 2월 23일 오후 5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카페소리.

▶'프로젝트 그리다'의 연극 '당신이 잃어버린 것'=2월 21~23일 오후 3시와 7시 세이레아트센터, 010-3444-7586.

▶소누스(SONUS) 어린이합창단 졸업 연주회=2월 23일 오후 6시 문예회관, 010-4699-8106.

▶브릴란테 브라스밴드 창단 연주회=2월 23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3693-8628.

<전시>

▶이남찬 초대전=2월 17~29일 현인갤러리, 747-1500.

▶2020 지역네트워크 교류전 '각별한, 특별한, 특별한' =2월 18~5월 24일 제주현대미술관, 710-7803.

▶변경섭의 '기억하며, 바라며' =2월 21~4월 26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710-7731.

▶한울속 개인전 '블로섬(Blossom)' =2월 22~27일 문예회관, 710-7633.

▶색(色)다른 섬 풍경=2월 23일까지 이충서곡미술관, 760-3567.

▶기담미술관 신소장품전=2월 23일까지, 733-1586.

▶나를 찾아서, 치유의 물방울 =2월 23일까지 김창열미술관, 710-4150.

▶연갤러리 이민 초대전=2월 25일까지, 010-8954-3435.

진선희기자

# "급여 환원·예술인회관 건립 추진"

제주예총 회장 입후보 2명 송윤규·김선영 후보 공약 이달 19일 임원 선출 총회

지난 14일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다. 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제주예총 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의 공약 경쟁도 뜨겁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회장 급여 환원, 예총회관(예술인회관) 건립 추진 등을 내걸며 표심을 붙잡고 있다.

16일 제주예총이 공개한 선거 공보물을 보면 제주연극협회 소속인 송윤규 후보는 제주예총 회장 급여 제

주예총 발전 기금 환원, 제60회 탐라문화제 추진단 구성 운영, 제주예총 국내외 행사 시 회원 단체 우선 참여와 지원, 예술인 회관 건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송 후보자는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 비상임 이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비상임 이사, 대한민국문화의달 제주 추진위원장,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제주미술협회 소속인 서예가 김선영 후보 역시 회장 급여 환원, 제주예총 이사회 운영 강화, 제주예총회관 마련 위한 교도부 확보,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교류 기회 확대, 제주예총 소속 단체 창작활동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로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제주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임원 선출을 위한 제주예총 정기총회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제주문예재단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다. 제주예총 10개 회원단체와 예총 서귀포지회에서 3명씩 추천한 총 33명의 대의원들이 선거권을 갖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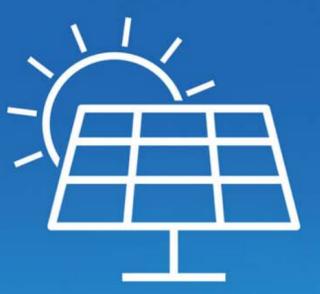
전문예술법인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가 2020년 상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오디션은 3월 14일 오전 10시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실(제주시 구산로4길 13-4)에서 열린다. 초등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은 자유곡 1곡(스즈키 교본 제3권 이상의 수준)을 준비하면 되고 초등 관악과 중·고등 관·현악 역시 자유곡 1곡을 연주하면 된다. 제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응모 자격을 갖는다. 접수는 3월 12일까지 이루어진다. 문의 064)721-2588, 010-9487-5878.

한라도서관 문체부 공모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관장 류도일)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여러 정보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한라도서관 등 전국 65개 도서관이 공모사업에 뽑혔다. 한라도서관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미술과 개그, 국악과 포크, 재즈 공연 등 3회에 걸쳐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무료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라도서관은 올해 북문화공간을 표방하며 제주도민의 문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 태양광 발전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결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742-5775

www.jeusolar.co.kr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